



“경계에 선 소녀 이야기 첫 멜로, 온전히 몰입해”

영화 '너와 나' 김시은

“시나리오를 읽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전혀 부담 없이, 신나고 재밌게 연기했습니다.”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영화 '너와 나' 주연 배우 김시은(사진)은 촬영 당시를 돌아봤다.

그는 조현철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에서 친구 '세미' (박혜수 분)를 사랑하는 여고생 '하은'을 연기했다.

김시은은 “데뷔 후 첫 입맞춤 신을 혜수 언니와 했다”면서 “처음으로 멜로, 로맨스 연기였다”며 웃었다. “세미의 호흡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연기했어요. 세미가 화를 내거나 살짝 미운 구석이 있더라도 그 모습조차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하은이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하은이 돼서 세미를 대했고요. 혜수 언니도 너무나 꼼꼼하게 캐릭터를 분석해서 세미 그 자체가 돼 현장에 왔어요. 박혜수라는 배우가 아니라 그냥 세미로 보이더라고요.”

김시은과 박혜수는 촬영 몇 달 전부터 대본 리딩을 통해 호흡을 맞춰갔다. 조 감독은 시나리오에 얽매이지 않고 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극 중 하은과 세미의 말투와 행동은 실제 두 배우의 것 그대로다.

그러나 '너와 나'를 단순히 귀여워 영화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여고생 간 사랑을 다루긴 했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주요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참사가 벌어지기 하루 전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세미와 하은이 겪는 일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아이들의 모습도 비춘다.

2014년 참사 당시 중학생이던 김시은은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교실에 선 채로 창가에서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얘기를 들던 그 순간이 아직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잊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가 세상 나오게 된 것도, 그 이야기에 제가 하은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는 약 20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오디션을 통해 하은역을 따냈다. 이 영화를 통해 첫 장편 연출에 도전한 배우 겸 감독 조현철은 김시은을 두고 “놀랍도록 동물적인 배우로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보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김시은은 역시 조 감독에 대해 “천재적인 감독인 것 같다”며 “삶과 죽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그가 '너와 나' 오디션을 본 계기도 “감독님처럼 독보적인 연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연출은 어떻게 할까 기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시은은 지난해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회’(2022)로 영화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는 콜센터로 실습을 나갔다가 비극을 맞는 특성화고 학생 ‘소희’를 연기해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배우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는 “막연히 텔레비전에 나오기 싫다고만 생각했지, 진짜로 배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EBS 1TV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특!특! 보너스!’ MC 후보로 참가했던 그는 이후 각종 드라마에 조연·단역으로 출연하며 차곡차곡 경력을 쌓았다. 이후 소속사도 생겼고 ‘너와 나’와 ‘다음 소회’ 주연도 잇따라 꿰찼다.

김시은은 “하고 싶던 일에 한번 발을 들였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다”며 웃었다.

“과거에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안정적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나는 인간 구실도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삶을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그걸 못해낼까 봐 두렵기도 했고요. 요즘은 지금까지 누린 행운과 주위에서 받은 격려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빨리 만나서 연기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고생 간 사랑 다룬 귀여워 영화 있는 그대로의 사랑 담아 세월호 참사 생존 여고생 역할 가슴 아픈 사고, 잊어선 안돼”

최지우, 7년만에 스크린 복귀

‘뉴 노멀’ 다음달 8일 개봉

최지우 주연의 스릴러 영화 ‘뉴 노멀’이 다음달 8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20일 밝혔다.

‘기담’(2007), ‘곤지암’(2018) 등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의 신작으로,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린 새로운 시대를 그렸다.

‘뉴 노멀’은 최지우가 ‘좋아해줘’(2016) 이후 7

년 만에 주연한 영화다. 그는 ‘뉴 노멀’에서 잊지 못하는 여자 ‘현정’ 역을 맡았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JTBC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이유미도 출연했다. 보이그룹 사이니 멤버 최민호, 블랙비 출신 표지훈(피오), 트로트 가수 정동원 등도 출연전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 겸 프로듀서 윤상은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BTS 정국 ‘신기록 행진’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톱10 3곡 동시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의 노래 3곡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 10위권에 동시 진입했다.

22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서 정국의 솔로 싱글 ‘세븐’(Seven)과 ‘3D’가 각각 1위와 9위, 정국이 피처링한 더 키드 라로이의 ‘투 머치’(TOO MUCH)가 10위를 기록했다.

빅히트뮤직은 “이로써 정국은 이 차트 10위권에 3곡을 동시에 올린 첫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가 됐다”고 밝혔다.

정국의 ‘세븐’은 발매 직후부터 지금까지 99일간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국은 내달 3일 첫 솔로 음반 ‘골든’(GOLD-EN)을 전 세계 동시 발매한다. /연합뉴스



‘막장 대모’들 아쉬운 시청률

임성한·김순옥 작가 드라마 5~6% 대...“자극적인 각본 흥미 없어”

과거 방송가에서 이른바 ‘막장 드라마’의 대모로 불리며 흥행 보증수표로 통했던 임성한 작가(필명 피비)와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 잇달아 아쉬운 성적을 냈다.

22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순옥 작가가 각본을 쓴 SBS 금토드라마 ‘7인의 탈출’ 시청률은 지난 9월 23일 자체 최고치인 7.7%를 기록한 이후 7% 선에서 오르내리며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7인의 탈출’ 지난 14일 방송분은 시청률 6.5%로 동시간대에 방송된 MBC ‘연인’ 파트2의 9.3%와 tvN ‘힘센여자 강남순’의 8.0%보다 낮았다.

최근 수개월 동안 SBS가 같은 시간대 방송한 금토드라마와 비교하면 ‘7인의 탈출’ 시청률은 저조하다. 이전에 방송된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곡수’는 최고 9.3%, ‘악귀’가 11.2%,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이 16.8% 등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7인의 탈출’은 첫 방송부터 연예계 행사장에 폭력배들이 난입해 흥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고, 여고생의 원조교제와 출산, 가정 폭력 등 자극적 소재로 논란이 됐다. 특히 금라희(황정음 분)가 딸 방다미(정라예)를 폭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표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인의 탈출’과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상태다. 방송위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종영한 TV조선-쿠방플레이 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임성한 작가가 각본을 썼는데도 중반부까지 시청률이 5%대에 머물렀다. 후반부에는 시청률이 다소 올라 마지막 방송은 8.1%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씨 두리안’은 조선시대와 현대를 오가며 이야기가 펼쳐지는 판타지 멜로 드라마다. 조선시대의 두리안(박주미)과 김소저(이다연)가 현대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



SBS '7인의 탈출'

흥행 보증수표처럼 통하던 작가들이 연이어 부진한 성적을 낸 것은 영상 콘텐츠 업계의 지형도가 과거와 달라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행으로 TV 드라마 시청자가 과거보다 줄었고, 높은 제작비를 투입한 드라마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단 이런 외적 요소뿐 아니라 작가들의 각본에서 원인을 찾는 전문가도 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각본이 시청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 서면서 관심과 흥미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드라마는 어느 정도 과장과 개연성이 인정되지만, 두 작가 모두 드라마가 허용하는 선을 넘어간 것 같다”며 “개연성 부족이나 적절한 선을 넘어간 과정은 흥미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